

프랑스, 화물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최초의 '충전 통로' 개통

<https://trans.info/en/electric-truck-charging-399758>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automotive-and-assembly/our-insights/building-europes-electric-truck-charging-infrastructure>

프랑스가 전기 대형 화물차 전용 충전 복도를 유럽 최초로 개통하여 대형 화물 차량의 탈탄소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프랑스의 고속도로 운영업체 APRR과 공공 서비스 제공업체 Engie Vianeo는 유럽 최초의 전기 화물차 전용 '충전 통로(charging corridor)'를 개통하였다.

충전 통로는 파리와 리옹 사이 440km 구간의 휴게소에 설치되었으며, APRR에 따르면 각 충전소에는 CCS 400-480kW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어 법적으로 요구되는 운전자의 휴식 시간인 45분 동안 트럭을 충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화물 운송업체들이 장거리 이동 시 전기 트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화물 운송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랑스에서 배출가스의 40%는 대형 화물 차량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대형 화물 차량의 전기화를 촉진하는 것은 탈탄소화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형 차량은 경량 차량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고출력 충전소와 충전 포인트의 수를 늘려 많은 충전소를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에 APRR과 Engie Vianeo는 대형 차량 전용 '충전 통로'를 설계하였으며, 충전 포인트 2개가 있어 두 대의 차량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4만 톤의 CO₂ 배출량을 줄이고, 내연기관과 관련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없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충전 통로는 향후 대형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충전 슬롯 예약 시스템이 곧 제공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운전자들은 충전소에서의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Engie Vianeo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5년에 추가로 11개의 충전소를 개설할 계획이며, 프랑스와 인접한 국가로 확장하여 유럽 전역에 걸친 전기 충전 통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기 대형 화물차용 리옹~파리 충전 통로
출처: <https://www.auto-infos.fr/aprr/> Photo credits @ APRR (검색일: 2024.11.26.)



충전 통로에서 충전하는 대형 화물 전기차량
출처: APRR 홈페이지. <https://presse.aprr.com/section/ressources/?lang=fra> (검색일: 2024.11.26.)